

제 3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0년 4월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우리는 사회과학자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가 결코 성실하지 않다거나 순수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진리에 대한 순수성과 탐구가 다른 가치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의 단언은 단지 그의 입술과 혀의 움직임일 뿐이며, 그의 심장이나 마음과 상응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중략- 그의 <윤리적 중립성>은 허무주의나 허무주의에 이르는 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껏해야 경박함이나 속물성에 대한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진리란 것은 가치로운 것이라고 그가 말할 때 그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가치라고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가 속한 사회가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가치들에 순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곧 실용주의적 사회과학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순응주의와 속물주의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
진리를 찾는 것이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이익을 택할 것이기에 속물주의를 양성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사회과학적 실증주의의 이론적 취약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 여기서는 이 학과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공격을 가한 비평들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1) 사회현상들, 즉 모든 중요한 사회현상들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고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과학자들이 원폭에 대해 먼저 개발했지만, 그들은 본인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미국행을 택하였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먼저 개발하게 되었다.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평가하는 과정이 없이 사상이나 행위 또는 작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자주 그러하기도 하지만, 만일 우리가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의 가치판단이 정문을 통해서 입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것은 후문을 통해서 입장한다. 가치판단은 정신병리학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사회과학의 부속건물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과학자들 스스로가 비균형적이고 신경 쇠약적이며 잘못 적응하는 인간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 이른바 순수한 서술적 개념 속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판단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자들이 민주주의적 유형의 인간과 권위주의적 유형의 인간을 구분할 때, 그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에게서 그들이 나름대로 훌륭한 민주주의자로서 부정하는 모든 것들을 희화화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치적> 정치과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음의 논리로써 아주 간단하게 밝혀질 수 있다. 정치학은 정치적인 것들과 비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구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전제로 한다. 진정으로 과학적이기 위해서 정치과학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명시적이고 충분히 답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시민사회라도 그것의 목적에 비추어 정의할 경우 우리들은 정치적 행동 및 제도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의 목적이 필연적으로 시민사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 가치판단의 거부는 다른 가치들 및 가치체계들 사이의 갈등이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본질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아주 확실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결코 한번도 증면된 적은 없다. 그것에 대한 증명은

『순수이성비판』의 개념적 태동과 구체적인 완성에 이르게 할 정도의 거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평가이성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특정한 가치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내세우는 산만한 관찰들인 것이다. 사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가치상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현명하다.

해결될 수 없는 가치상의 갈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옳다는 것이 아닌, 처세를 하기 위한 현명함이란 뜻이다.

가치판단이란 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 관련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성향을 진작시키고 있다.

가치상대주의는 문제해결이 필요한 순간에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